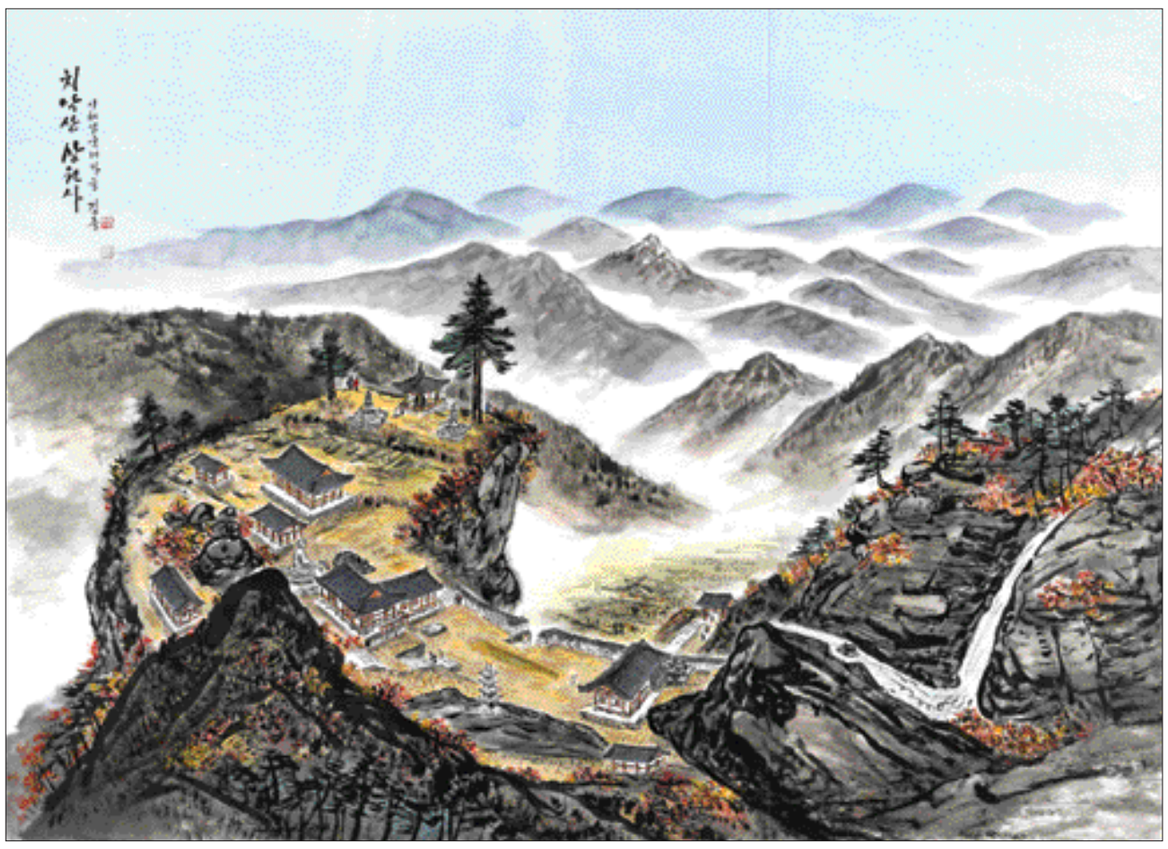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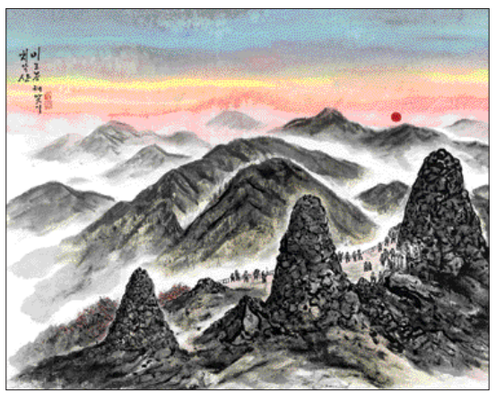
리뷰 이호신 화가 화문집 발간 〈근원의 땅, 원주 그림순례〉



치악산 상원사 (148×210cm)



원주 거돈사지의 설야 (137×178cm)



치악산 비로봉 해맞이 (148×208cm)

산수화에 인문학을 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라진 세월의 흔적을 더듬으며 잡초 무성한 절터를 거닐다가 화실로 돌아왔다. 한지를 펴고 거돈사터를 화폭에 옮겨본다. 발굴 당시의 희미한 항공사진을 어렵게 구해 살펴가며 가람의 밑그림을 그린다. 답사는 한여름에 했으나 그림의 배경은 스산한 겨울밤이다. 밤하늘에 반달이 떠있고, 폐사지에는 눈이 내린다. 산세와 폐사지와 유적을 수묵으로만 그려나간다. 어제의 역사 속에 오늘의 눈이 내린 장면을 표현하고 무상한 세월을 담고 싶었기에…"

흥미로운 화문집이 나왔다. 이호신 화백의 〈근원의 땅, 원주 그림순례〉다. 한국 진경산수화의 전통을 창신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과 다채로운 색채를 응용하여 '생활산수화' 라는 독자적인 장르와 화풍을 추구해 온 이호신 화백은 30년 이상 이 땅의 산하대지와 문화유산을 두루 살피며 가슴에 절절히 담아 그림으로 형상해온 길 위의 화가다. 이 화백은 화가와 문장가, 역사가와 인문학자의 소양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엔 그림만 있지 않다. 그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의미, 가치 등 그 그림으로 인해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녹아있다. 잃어버린 역사와 사라진 삶의 이야기를 채집하여 오늘의 숨결과 현재의 시선으로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 사물에 시간의 흔적을 채록하고, 그 안에 깃든 생의 자취를 시각화한다. 아울러 사라지고 망실된 우리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복원하여 기록한다. 역사에서 추출된 공식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거나 누락된 것들, 소소하여 밀려난 것들까지 힘껏 껴안으며 그림과 글로 되살려 놓는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이야기 그림' 이면서 '그림 이야기' 가 된다.



원주에 깃든 역사 · 자연 · 문화 · 인물 126점

오늘의 숨결과 현재의 시선으로 복원

화가 · 문장가 · 역사가 · 인문학자의 눈으로 본 원주

이 화백이 이번에 펴낸 〈근원의 땅, 원주 그림순례〉는 이 화백이 수년에 걸쳐 치악산 국립공원과 원주시를 탐사하여 그 공간이 산출한 의미 있는 대상들을 그림과 글로 담아낸 화문집이다. 원주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산, 상징 인물 그리고 근현대사의 자취까지 총망라한 기행화첩으로, 원주라는 땅의 어제와 오늘이 한데 어우러진 감각적이고 운치 있는, 이호신의 생활산수화를 만날 수 있다. 여섯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책에는 모두 126점의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제1부 '치악산국립공원을 걷다' 에서는 원주의 상징과 같은 치악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 자리한 빛나는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구룡사와 비로봉이 있는 구룡지구, 입석사와 흥양리 마애불좌상, 보문사 등을 만날 수 있는 황룡지구, 계곡이 맑고 숲이 우거진 금대지구, '활엽수 박물관' 이라 불리는 성황림과 속세의 근심을 씻어주는 상원사를 품은 성남지구 등이다.

△제2부 '원주, 사람의 향기' 에서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소설가 박경리,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감동적인 생애를 인상 깊게 들려준다. 그리고 구름처럼 물처럼 살다간 동양철학자 김충열, 이 땅에 고구마를 처음 들여온 조엄 등 원주 땅에서 살다간 걸출한 위인들도 만날 수 있다.

△제3부 '역사의 유산을 찾아서' 에서는 고인돌과 석조불두를 통해 돌 하나에 깃든 역사의 무게를 가늠하고, 법천사지와 흥법사지, 거돈사지 등 원주의 폐사지를 찾아가 천년의 웅대한 시간과 조우한다.

△제4부 '삶과 문화의 숨결' 에서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박물관을 찾아가고, 급변하는 시대에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장인들을 만난다. 화가는 고판화 박물관과 오랜 미래신화미술관, 뮤지엄 산 등 원주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둘러보고, 한지테마파크와 시민 축제의 흥겨운 현장도 소개한다.

△제5부 '자연과 마을의 풍경' 에서는 학곡리 한다리골과 복사꽃이 아름다운 두둑마을, 생명의 배움터 참꽃작은학교, 소나무가 춤추는 집 무송원, 자연이 피고 지는 치유의 정원 원주 허브팜 등을 찾아간다.

△제6부 '근원과 오늘, 미래의 땅' 에서는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미로예술시장 등 원주 시민들의 오늘의 삶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현장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이호신 화백은 지금까지 17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주 핀란드 한국대사관, 주 탄자니아 한국대사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지은 책으로는 〈화가의 시골편지〉 〈지리산진경〉 〈가람진경〉 〈산청에서 띄우는 그림편지〉 〈우리 마을 그림순례〉 〈그리운 이웃은 마을에 산다〉 〈풍경소리에 귀를 씻고〉 〈숲을 그리는 마음〉 〈길에서 쓴 그림일기〉 등이 있다.

청소년불교사진 공모전 3월 15일 마감

청소년들에게 불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진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불교사진협회(회장 · 최우성)은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미래 한국불교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영상을 통한 불심을 심어주기 위해 조계종총무원 봉축위원회와 함께 '제12회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 을 개최한다. 전국의 중 · 고등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3월 15일이다. 작품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교생활 모습 △사찰에서의 신행활동 및 법회 모습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아름다운 봉사활동 모습 △파라미타 수련생활 모습 △불교문화재의 예술적 표현 등이며 규격은 가로 2500픽셀 이상의 jpg이미지로 1인 5점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처는 한국불교사진협회 홈페이지(www.buddhaphoto.org)이며, 심사결과는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중에 발표한다. 시상식은 5월 중 열리는 회원전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조계종 총무원장상인 대상 수상자(1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50만원, △금상(1명, 한국불교사진협회장상 및 장학금 30만원), 은상(2명, 한국불교사진협회장상 및 장학금 각 20만원), 동상(3명, 한국불교사진협회장상 및 장학금 각 10만원), 장려상(5명, 한국불교사진협회장상 및 장학금 각 5만원), 입선(30점 이내, 상장) 등이다. 박재완 기자

오감으로 즐기는 무술년 정월대보름

국립민속박물관 '2018년 정월대보름 흥겨운 잔치 한마당'



액막이 연 날리기 체험.

국립민속박물관(관장 · 천진기)은 2018년 정월대보름(3월 2일)을 맞이하여 2월 28일(수)과 3월 2일(금) '2018년 정월대보름 흥겨운 잔치 한마당' 세시 행사를 개최한다.

대보름은 〈삼국유사〉에서부터 그 유래를 볼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다. 선조들은 대보름의 달빛을 어둠과 질병, 재액을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기억하기 시작한 이 날의 풍속들은 우리 세시풍속의 1/4이 넘을 정도로 풍부하다. 설 풍속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부럼깨물기 · 더위팔기 · 귀밝이술마시기 · 시절음식인 복쌈이나 묵은 나물먹기와 달떡먹기 등 개인적 차원의 풍습과 줄다리기 · 다리밟기 · 고싸움 · 돌싸움 · 쥐불놀이 · 탈놀이 · 별신굿 등 집단적 차원의 풍습이 전해온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보름날의 풍습을 입과 눈, 손과 몸 그리고 마음으로 각각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름달을 닮은 배지와 한지를 이용하여 원형 과반도 만들어 보고 액막이연도 만들어 날려보는 체험의 장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월대보름에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부럼과 약밥, 복쌈을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다. 또한 예약한 10명 이상의 단체가 방문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새끼줄 꼬기 체험에 참여할 경우에는 부럼, 약밥, 복쌈 등으로 구성된 정월대보름 행복꾸러미를 무료로 제공한다. 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정월대보름 행사 가운데 3종 이상을 체험하고 인증할 경우, 돌림판을 돌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정월대보름인 3월 2일(금) 11시부터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2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정월대보름 부럼을 무료로 나누어 줄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

사단법인 해동불교약사종

법인등록번호 284121-0003832

전법도생과 자비공생을 함께 하실 제방의 인연을 모십니다

宗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하고

旨 하화중생(下化衆生)은 전법도생(傳法度生) 자비공생(慈悲共生)한다.

선교겸수(禪敎兼修) 수행하면서
약사경을 소의경전으로 수지 독송하고
투철한 약사신앙을 실천하는 불교
그 맥을 정립하여

절(寺)에 오고 가는 뭇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고통이 사라지고 심중소구 원만하며
스님을 친견하면 희망을 담아가는 곳.

유구(悠久)한 전법도생 가람으로 만들면서
우리 서로 화합하여 종단으로 맺어지면
안락하고 여유롭고 서로 돕는 자비공생의 사회

이것이 불국정토 아니겠는가!

❶ 약사신앙을 연구하며 전법도생하고 구도자로서 수행하며 자비공생하는 호국불교, 천년의 맥을 이어갈 약사종 종도를 기다립니다.

❷ 한번쯤 출가를 생각 하셨던 분. 또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원만하지 못하고 막연하신 분. 알맞은 길, 큰 길로 인도합니다.

❸ 종파(宗派) 신분(身分)을 초월하여 본 종단의 종지와 사업에 관심있게 일조할 강호제현 인사를 특별자문위원으로 모십니다.

◆ 1차 구비서류

❶ 주민등록 등본 1통 / ❷ 이력서 1통 / ❸ 사진 2매

◆ 종단 사업

❶ 삼보호지 약사신앙 등 불교홍포사업
❷ 불교교학 연수 등 교육사업
❸ 사원 및 포교원설치 관리사업
❹ 교재편찬 기관지 및 출판사업
❺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❻ 승려 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❼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사)해동불교약사종 총무원장 원담 일광 합장

총무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16-1
전화 031)584-2270 / 팩스 031)584-2269 / 총무원장 010-8981-7908